

재속 프란치스코회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 하느님을 향한 인간 정신의 여정

제 06-12호 2006년 12월 17일 발행

St. Bonaventure Fraternity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월례회: 매월 셋째 일요일 1:30 PM 반모임: 매월 넷째 일요일 12:30 PM  
장소: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 지식에 선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사도가 말합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2고린 3,6).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고 또한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줄 많은 재물을 획득하려고 다만 말마디만을 배우기를 열망하는 이들은 문자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문자(성서)의 정신을 따르기 원치 않고 말마디만을 배워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기를 열망하는 수도자들은 문자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문자나 알고 싶어하는 문자를 모두 자기 육신의 것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선을 소유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주 하느님께 그것들을 말과 표상으로 돌려드리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문자의 정신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적 권고 7

## 예수 성탄 대축일 12월 25일

고요한 어둠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구세사의 이 엄청난 신비가 나약하고 보잘 것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죄인들에게 구원의 빛이 내린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뵈고 경배 드리자.



##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12월 8일

동방 교회는 전통적으로 5세기 말부터 예루살렘의 마리아 성당 봉헌일인 9월 8일에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을 지내 왔다. 사실 성모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 역사적으로 불분명한 상황이었기에 마리아 성당 봉헌일을 성모님의 탄생일로 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전통은 8세기에 이르러 성모님의 탄생 축일을 정하는데 기반이 된다. 성모님께서 9월 8일에 태어나신 것으로 볼 때 여기에 일반적인 인간의 수태 기간인 9개월을 뒤로 뺀 12월 8일이 자연히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대축일이 된 것이다. 이러한 동방의 전통은 9세기경에 서방 교회에 전파되기 시작하였고, 1476년 식스토 4세 교황이 로마 전례력에 도입하였다. 비오 9세 교황은 1854년 12월 8일, 전통으로 내려오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신앙을 '믿을 교리'로 선포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가 1,38) 루가 복음사가는 동정 마리아께서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실 것이라고 전한다. 이 세상에 구원이 도래하는 데에는 성모 마리아의 순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하와의 불순종과 성모 마리아의 순명이 극명히 대비되고 있다.

인간에게 고귀한 품위를 주시고, 더욱 새롭게 창조하신 하느님, 성자께서 사람이 되셨으니, 저희도 하느님이신 성자를 닮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성인은 그레치오에서 형제들이 있는 곳에 머물기를 좋아했다. 우선 그 곳에는 가난에서 오는 풍요가 뚜렷했고, 다음은 조금 떨어져 있고 튀어나온 바위 속에 있는 방에서 천상적인 일에 더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는 오래 전에 그가 아기 예수와 더불어 아기가 되어 베들레헴의 아기 성탄을 기념한 곳이다.” (첼라노 제2생애 35)

### [‘회개의 마을’의 기원에 관한 전설]

그레치오는 구유를 만들어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전례가 시작된 곳입니다. 주님을 그대로 닮기를 원하신 성 프란치스코가 특별히 사랑했던 곳들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페루지아 전기에 의하면 성 프란치스코는 이 마을을 이렇게 칭송합니다. “나는 그 어떤 도시에서도 이 그레치오라는 작은 마을에서만 많은 회개가 이루어진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칭송을 받은 그레치오는 그리스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듯이 느껴집니다. 사실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은 그리스에서 전쟁 때문에 피난 혹은 귀양온 한 가족에 의하여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 [수도원 시작]

현재와 같은 수도원이 있기 이전에 프란치스코는 이 산 기슭에서 움막을 짓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끔 마을로 내려와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에 감복한 마을 주민들이 그에게 계속해서 머물러 줄 것을 청하였다고 합니다. 그 주민 중에서 요한 벨리타라는 사람은 프란치스코와 그의 동료들을 위하여 마을에 머물 수 있는 집을 지어 주었는데 프란치스코는 이것을 거절하고는 산 위에 작은 은둔소를 지어주기를 청하여 몇 개의 동굴을 파 형제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기에 형제들이 머물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차 경당이 들어서고 수도원을 확장하는 등 절벽을 따라서 증축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절벽을 따라 지어졌기에 여느 수도원들처럼 커다란 정원이 있거나 회랑같은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하늘을 향하면서도 또한 지상으로 부터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프란치스코는 황혼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 [구유를 만들]

그레치오 성지에서 특별하게 공경을 받는 것은 “강생의 신비,” “성인께서 제병을 구유실 때 사용한 철,” 성인의 생전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초상화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덧붙인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쁘게 만들어 봉헌한 구유들을 모아 둔 구유 전시장이 있을 것입니다. 1223년, 교황 호노리오 3세로부터 회칙을 인준받을 때 그는 교황님으로부터 성탄을 보다 생생하게 지낼 수 있는 허락을 받았고

## 그레치오



그레치오로 돌아와 생생하게 강생의 신비를 재현하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성탄 자정 미사 중에 구유에 계신 아기 예수님께서 눈을 뜨셨다고 합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신앙의 눈으로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 곳의 성탄미사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바티칸의 미사가 장엄하다면 이 곳의 미사는 소박한게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례나 행렬이 없다하더라도 이곳에서 묵상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은 강생의 신비로 우리를 부르는 또 하나의 초대장입니다.

### [특별한 장소들..]

이 곳에는 구유동굴과 프란치스코의 침실이 인상적입니다. 프란치스코가 성탄 신비를 재현했던 그 동굴로 천장에는 15세기 전후에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 프레스코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그레치오의 성탄과 베들레헴의 성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속프란치스코 회원이며, 성인의 친구로서 은둔소를 만들고, 성탄 구유를 준비한 요한 벨리티의 유해가 입구 오른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맨 끝 구석에 프란치스코의 침실이 있습니다. 사실 말이 침실이지 이 곳은 동굴로서 침대와 베개도 또한 돌로 만들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은둔소들과 마찬가지로 성인은 이렇게 고행을 함으로써 한시도 육체가 유혹에 빠지거나하여 정신이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 하였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자 요한이 거주했다는 동굴에서 몇 미터 안되는 산 중턱의 바위굴이었던 곳에 암벽에 의지하여 지어진 성 프란치스코의 은둔 경당이 있다. 아마도 이곳이 바로 성 프란치스코가 환시를 통하여 장차 페루지아의 귀족과 백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였던 바로 그곳 일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 보나벤투라가 거주하였던 방, 복자 요한이 거주했다는 동굴, 그리고 프란치스코 기도실 그리고 순례객들을 위하여 1959년에 새로 지어진 새 성당 등이 있다. 그레치오는 프란치스코 역사적 사료로서 중요한 세 동료 전기의 전신으로 볼 수 있는 세 동료들의 증언을 담은 편지가 작성된 곳이기도 하다. 또한 크레첸시오 총봉사자에게 보낸 편지도 여기서 쓰여졌다. 그레치오는 프란치스코인들의 베들레헴이다. 그리스도가 비친한 인간이 되시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인간적 죽음의 여정의 시작인 곳, 베들레헴. 따라서 그레치오 또한 우리 프란치스코들에게 있어서 가난과 작음, 겸손의 고향으로서 시작되어야 하며, 이기와 독단의 마음들이 죽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 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 곳 그레치오를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면에 계속)

입 안에는 말이 적고, 마음에 일이 적고,  
뱃속에 밥이 적어야 한다

## 뱃속에 밥이 적어야 한다

이 말을 되새기며 나의 먹는 일상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허겁지겁, 게걸스레 먹고 또 먹고...  
그리고 보니 생활의 반은 먹는 마음으로 삽니다.

뱃속 채우는 일,  
이 가장 원초적인 일에 참 많이도 마음을 쓰며  
살아갑니다.

'최소한의 필요'에 의한 음식이면  
더 바랄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정도는 접어두고라도 하루 세끼 밥때를 다  
챙겨 먹고도 모자라  
빵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군것질에  
'먹고싶은' 마음에 먹는 것이 참 많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에 먹기 보다는  
'먹어야 하는 마음'에 먹고 살아야 합니다.

몸통이 이끌고 갈 만큼만 먹고 살면 되는데  
참 생각해 보면 먹는 문제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 "관심" 중에서

## 그레치오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기 3년 전, 작은 마을 그레  
치오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날에 프란  
치스코가 한 일은 기억할 만한 것이고, 경건하게  
기억을 되새길 필요가 있는 곳이다 ...

“우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  
하고 싶습니다. 아기가 겪은 그 불편함을 보고 싶고,  
또한 아기가 어떻게 구유에 누워 있었는지, 그리고  
소와 당나귀를 옆에 두고 어떤 모양으로 쥘복데기  
위에 누워 있었는지, 나의 눈으로 그대로 보고 싶습  
니다.” ...동네의 남정네들과 아낙네들도 형편에  
따라 밀초와 햇불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일년 내내  
빛나는 별로써 낮과 밤을 밝혀 줄 바로 그날 밤을  
밝혔다. 마침내 하느님의 성인이 당도하셨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분은 보고  
기뻐하였다. 구유도 준비되었고, 쥘복데기도 옮겨  
졌으며, 소와 당나귀도 끌려 왔다. 그 곳에서는  
단순함이 추앙을 받았고, 가난이 높여 졌으며, 겸허  
가 찬양되었다. 그레치오는 새 베들레헴처럼 꾸며  
졌다. 그 밤은 대낮같이 환히 밝혀졌고, 사람들과  
짐승들을 매우 즐겁게 하였다. (4면에 계속)



## 주는 공부



세상에 준다는 것처럼 좋은 일이 없습니다  
남에게 따뜻한 미소를 주고,  
정다운 인사를 보내고,  
힘찬 격려의 말을 해주고,  
지혜와 희망과 신념과 용기와 기쁨을 주어야합니다

주는 손은 축복받은 손이요  
주는 마음은 너그러운 마음이요  
주는 생활은 훌륭한 생활이요  
주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먼저 남에게 주는 것을 배워야합니다  
주면 반드시 받게 됩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습니다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도 있습니다  
웃음이 가면 웃음이 돌아오고  
사랑이 가면 사랑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서로 말을 주고받고,  
인사를 주고받고, 웃음을 주고받고  
기쁨을 주고받고 정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받으려면 먼저 주어야합니다  
주지도 않고 먼저 받으려고만 합니다  
먼저 주는 것을 배우고 주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많이 가진 자가 많이 줄 수 있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는 자가 되기 위하여  
먼저 준비하고 저축해야 합니다

인간의 위대성의 척도는  
남에게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위대하다는 것은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많이 준 사람입니다

위대하다는 것은 주는 것이요  
주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 안병욱 명상록 -

## 보나벤투라 형제회 소식난

- + 12월 2일 홀리 네임 칼리지에서 양성 워크샵과 평의회가 있었으며 평의회원등 5명이 저녁식사에 초대되었고 도네이션 \$300을 하였습니다.
- + 성정 바오로 성당에 제대 꽃값으로 \$200을 기증하였습니다.
- + 12월 10일 강요한 형제님의 모친 강헬레나 자매께서 73세로 별세하셨습니다. 그날 모친택에서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형제회원들이 신부님과 수사님을 모시고 연도를 하였습니다.
- + 12월 17일 성당 주일학교 연말 파티 관계로 한테레사 자매택에서 월례회를 하겠으며 고르벨리오 수사님의 송별식도 있겠습니다.

### 기도 중 기억합시다 ...

- + 강헬레나 자매의 영혼을 위해 ...
- + 보나벤투라 형제회 양성반을 위해 ...
- + 지원반 서말가리다 자매가 한국 방문 중입니다 ...
- + 12월12일 암으로 세상을 떠난 DC 프란치스코 형제회의 전 회장 낸시를 위해 ...
- + 세계의 평화를 위해 ...

### 그레치오

사람들이 물려들었고, 그들은 새로운 신비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쁨에 화답하였다. 형제들도 노래를 불렀고, 지금까지 못다 바친 찬미를 주님께 바쳤으며, 밤새도록 그들의 기쁜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느님의 성인이 탄성을 울리며 사랑에 도취되었고, 말할 수 없는 기쁨에 가득차서 구유 앞에 섰다. 이렇게 하여 구유 앞에서 장엄미사가 거행되었고, 사제는 새로운 영혼의 평화를 체험하였다.... (첼라노 제 1생애 84-87) ■

### 12월 월례회 시간표

1:00 PM - 다과  
1:30 PM - 양성 교육  
3:00 PM - 월례회/신부님 강론  
미사 / 공지사항

### ✂ 미사성가: 지침서 ✂

입당: 76번 임하소서 임마누엘  
봉헌: 35번 새로운 계명  
성체: 4번 작은 자의 열망  
마침: 65번 천상의 어머니



제1독서: 남 야고보

제2독서: 남 엘리사벳

신자들의 기도:

김 아가다, 하 데레사  
송 마리아, 조 아가다

### 본명축일을 축하합니다

12월 8일: 조 마리아  
12월 27일: 지 요한, 강 요한

### 1월 간식담당

곽 토마스 아퀴나스, 이 가브리엘라, 남 야고버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재속 프란치스코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회장: 한기남 703-425-9445 man5ki@yahoo.co.kr  
부회장: 이장훈 703-509-1388  
서기: 김미경 703-680-0274 talmadge01@msn.com

회계: 조순우 703-759-9429 swcsfo@yahoo.com  
양성: 조은자 703-250-1658 chosonyoo@hanmail.net  
영적보조: 김태승 안티모 OFM kantimo@hotmail.com